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10. 25.(금) 06:00 < 10.25.(금) 석간 > 배포 2024. 10. 24.(목)

한국과 말련,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등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 논의

- 에너지정책실장, 말련 페트로나스 가스해양사업 부문장 면담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10월 25일(금) 오전 10시 서울에서 다툭 아디프 줄키플리 (Datuk Adif Zulkifli) 페트로나스 가스해양사업 부문장과 면담을 갖고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페트로나스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과 협력사업을 진행 중인 말레이시아의 국영 에너지기업이다. 이번 면담은 페트로나스의 임원진이 한국 측 협력기업과의 연례적인 업무 논의차 한국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원안보 차원에서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가스공사 등 우리 기업이 페트로나스와 LNG 도입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으로 LNG를 공급받고, 해외가스전 사업에도 함께 참여 중임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LNG 분야 협력이 지속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석유공사, 삼성E&A 등 우리 기업이 말레이시아 사라왁주에서 추진 중인 그린수소·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과 페트로나스는 국내 발생 이산화탄소를 말레이시아로 이송하여 저장하기 위한 셰퍼드(Shepherd)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한-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양국 간 CCS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등 관련 논의를 진행 중임을 언급하며,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분야 양국 협력에서 페트로나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재은 (044-203-5240)
		담당자	주무관	김채은 (044-203-524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